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지위경쟁의 관점에서-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신 지 현

국 문 초 록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의 꾸준한 증가로 사교육비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차이로 인한 계층고착화 현상도 함께 우려된다.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계층 고착화 현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패배감과 무기력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문제에 맞서 여러 가지 사교육 대책이 나왔으나, 그 성과는 미미했다. 이에 사람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를 지위경쟁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교육비·사교육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현재의 사교육 효과 신뢰에 대해 재고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위경쟁이론에 따라 지위경쟁이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중요시하는 학생의 대입관, 그리고 사교육을 받는 이유를 지위경쟁으로 정의하였다. 종속변수는 사교육비와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각 변수들과 사교육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3차 자료와 5차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취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취도 변화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경우에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3차 자료와 5차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생 시기의 경우 부모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교육 받는 이유가 지위경쟁적인 집단이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시기의 경우 학생의 대입관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교육 받는 이유가 지위경쟁적인 집단이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 시기에는 부모의 지위경쟁성이, 고등학생 시기에는 학생의 지위경쟁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은 두 시기 모두 유의미하였다.

사교육과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 중학생 시기에는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 시기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업성취도 변화의 경우, 사교육비가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중학생 시기에는 정(+)의 방향을 나타낸 반면, 고등학생 시기에는 부(-)의 방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의 자율성이 증가하고, 자기주도학습 등의 요소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원과 지위는 한정되어 있기에, 경쟁은 불가피하다. 사람들은 다른 경쟁자의 행동을 고려하게 되며, 남보다 더 나은 지위에 가기 위해 무한경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교육 근절은 매우 힘든 일이다. 사교육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위경쟁으로 인해 사교육이 발생했음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득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받고 있는 사교육이 실제로 그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도 사회 전체적으로 재고해보고 사교육 참여를 선택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에는 사교육뿐만 아닌 학생 개인의

학습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어 : 지위경쟁, 사교육, 학업성취도, 교육열, KCYPs

학 번 : 2013-21900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4
제 2 장 사교육 정책	6
제 1 절 사교육 정책의 역사	6
제 2 절 사교육 정책의 유형	9
제 3 절 사교육 현황	11
제 3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3
제 1 절 이론적 배경	13
1. 학교팽창이론-지위경쟁이론	13
2. 지위재와 지위경쟁	15
3. 사교육의 정의	17
4. 사교육과 학업성취도 효과	18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9
1. 학교만족요인과 사교육	19
2. 지위경쟁요인과 사교육	21
3. 사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23
4.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25
5.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28

제 4 장 가설 설정 및 연구 설계	30
제 1 절 연구가설 설정	30
제 2 절 연구 설계	33
1. 분석자료	33
2. 변수의 선정	34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8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및 분석방법	42
1. 연구의 분석틀	42
2. 연구방법	43
 제 5 장 분석결과	44
제 1 절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44
[모형1] 1. 종속변수	44
2. 독립변수	46
3. 통제변수	49
[모형2] 1. 종속변수	52
2. 독립변수	54
3. 통제변수	55
제 2 절 다중회귀분석	57
1. 신뢰성분석	57
2. 다중공선성 진단	57
제 3 절 분석결과	61
1. 지위경쟁과 사교육비의 관계	61
2. 지위경쟁과 사교육비 비중의 관계	65
3. 사교육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68
4. 사교육과 학업성취도 변화의 관계	70
5. 결과의 해석	73
제 4 절 가설의 검정 결과	78

제 6 장 결론	82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한계	82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84
참고문헌	87
Abstract	93

표 목차

[표 1] 사교육 대책 유형별 특징 비교	10
[표 2]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1
[표 3] 사교육 참여율	12
[표 4] [모형1] 변수의 조작적 정의	38
[표 5] [모형2] 변수의 조작적 정의	40
[표 6] 사교육비·사교육비 비중의 기술통계분석 결과(중학생)	45
[표 7] 사교육비·사교육비 비중의 기술통계분석 결과(고등학생)	45
[표 8] 교육열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46
[표 9] 대입관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47
[표 10] 사교육 받는 이유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48
[표 11] 소득의 기술통계분석 결과(중학생)	49
[표 12] 소득의 기술통계분석 결과(고등학생)	49
[표 13] 지역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50
[표 14] 부모학력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51
[표 15] 형제자매유무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51
[표 16] 고등학교유형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52
[표 17] 학업성취도·학업성취도 변화의 기술통계분석결과(중학생)	53
[표 18] 학업성취도·학업성취도 변화의 기술통계분석결과(고등학생)	53
[표 19] 사교육비·사교육시간의 기술통계분석 결과(중학생)	54

[표 20] 사교육비·사교육시간의 기술통계분석 결과(고등학생)	55
[표 21] 학생개인변인의 기술통계분석 결과(중학생)	56
[표 22] 학생개인변인의 기술통계분석 결과(고등학생)	56
[표 23] 신뢰성분석 결과	57
[표 24] [모형1]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중학생)	59
[표 25] [모형1]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고등학생)	59
[표 26] [모형2]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중학생)	60
[표 27] [모형2]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고등학생)	60
[표 28] 지위경쟁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중학생)	61
[표 29] 지위경쟁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고등학생)	63
[표 30] 지위경쟁이 사교육비 비중에 미치는 영향(중학생)	66
[표 31] 지위경쟁이 사교육비 비중에 미치는 영향(고등학생)	67
[표 32]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중학생)	69
[표 33]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고등학생)	70
[표 34] 사교육이 학업성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중학생)	71
[표 35] 사교육이 학업성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고등학생)	73
[표 36] 가설 검정 결과(중학생)	80
[표 37] 가설 검정 결과(고등학생)	81

그림 목차

[그림 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12
[그림 2] [모형1] 연구의 분석틀	42
[그림 3] [모형2] 연구의 분석틀	4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매우 높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며, 그에 따라 지역마다 유명한 학원가도 형성되어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에는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이 늦춰지고, 듣기평가 시간에 따라 비행기 시간이 조정되는 등 나라 전체가 그 시험에 맞추어 움직일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사회적 신분과 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즉,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학교를 나오면 높은 사회적 신분과 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교육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학습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세계적인 교육열을 보이는 만큼, 사교육시장도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시행한 ‘2015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4만 4천원으로 2014년(24만 2천원)보다 1.0%(2천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명목 사교육비는 2013년(23만 9천원)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수치는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들도 포함해 평균값을 낸 것이어서,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느끼는 실제 사교육비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사교육 참여율은 68.8%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6). 이와 같이 사교육 참여는 꾸준히 지속

되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사교육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의 사교육문제가 가계에의 부담 측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차이로 인한 계층고착화 현상도 함께 우려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5년 3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지난해 3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62만 7천 700원으로 1분위의 월평균 교육비인 8만 200원의 7.8배에 달했다. 여러 항목 중 소득 계층 별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이 교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비 격차는 점차 확대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연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0년 5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1분위보다 6.3배, 2011년에는 6.1배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2012년 6.5배, 2013년 6.6배 수준으로 점차 그 격차가 벌어지더니 2014년 7.9배로 차이가 커졌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아이들이 갖는 기회가 달라지며, 교육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 사회의 계층 이동성이 약화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6). 이러한 현상은 계층이동의 사다리역할을 하던 교육이 이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절은 지났다.’는 말들과 최근에 등장한 ‘수저계급론’과 같은 용어들은 이러한 계층 고착화 현상에 대한 사회 전반적 분위기를 보여준다.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패배주의와 자조적 분위기는 사회 구성원들의 무기력함을 초래하고 사회의 성장을 저해한다.

사교육 문제는 최근에 등장한 문제가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녀온 문제이다. 1950-60년대부터 치열한 입시경쟁이 사회문제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사교육정책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등장했다. 사교육 정책의 유형은 크게 입시경쟁 제거형, 사교육 규제형, 공교육 내실화형, 그리고 사교육 제공형으로 나누어진다(강일국, 2012).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사교육 정책들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사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심화되어가고 있다.

사교육을 축소하고자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나오는데, 성공적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교육이 지위재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팽창시키는 원인은 지위재를 차지하기 위한 지위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하연섭, 2015). 그러나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때, 이러한 지위경쟁 요소를 고려하기 보다는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위경쟁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입시경쟁 제거형, 사교육 규제형, 공교육 내실화형의 사교육 정책들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면, 사교육 제공형 정책은 사교육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재·장효민, 2008; 박소영, 2008). 사교육 제공형 정책 중 하나인 EBS 수능강의는 입시과외 수요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하·백일우, 200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교육 과열현상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며, 계층 고착화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을 안고 있다. 이에 여러 가지 정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사교육 과열현상은 더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을 팽창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위경쟁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실제로 사교육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사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사교육 수요 요인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사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사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사교육정책의 유형과 사교육 현황을 알아본다. 그 후에 지위경쟁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때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자료이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자료는 2010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하여 각 패널별로 2300여명의 원표본을 갖추었다. KCYPS는 이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지적발달·사회정서발달·생활시간 등의 개인발달 영역과 가정환경·교육환경·부모관계 등의 발달환경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지는 학생용과 학부모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할 중1 패널은 제1차 조사(2010)에서 원표본 2351명을 조사하였다. 제2차 조사(2011)에서는 2280명의 조사에 성공하여 원표본 유지율 97.0%를 나타냈고, 제3차 조사(2012)에서는 2259명을 조사하여 96.1%의 원표본 유지율을, 제4차 조사(2013)에서는 기존 2351명 중 2108명의 조사에 성공하여 89.7%의 원표본 유지율을 보였다. 제5차 조사(2014)에서는 2091명의 조사에 성공하여 88.9%의 원표본 유지율이 나타났다. KCYPS는 단기간의 조사이며 표본이탈이 적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표본 대체가 없는 동일 표본설계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표본 이탈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성의 문제는 데이터가중치(weight)설정을 통해 보정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학생은 중학교 3학년(제3차 조사)시기를 바탕으로 분석하며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제5차 조사)시기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는 상급학교진학에 대한 준비가 활발해지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제 2 장 사교육 정책

제 1 절 사교육 정책의 역사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1950~1960년대부터 치열한 입시경쟁이 문제가 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초등교육 확대정책에 의해 초등학교 취학률이 96%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해 중학교 입시경쟁이 격화된 것이다. 명문중학교 입학 을 위한 입시가 시작되었고, 4당5락(4시간 자면 불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이라는 유행어가 등장했다. 이 당시에는 방과 후에 담임 선생님이 과외학습을 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어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통한 자발적 사교육 지원 형태였지만, 이러한 관행에서 점차 교사가 사교육을 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강일국, 2010).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시준비의 부담이나 사교육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시험을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택한다. 시험을 폐지하고 모든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입시경쟁이 완화되고 사교육도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그리하여 1968년 중학교 무시험입학제가, 1973년에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시행되었다(강일국, 2010).

그러나 이러한 입학시험폐지 방식의 사교육대책은 그리 유효하지 못했다. 중학교 입학시험을 폐지하면 고등학교 입시경쟁이 격화되고,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폐지하면 대학교 입시경쟁이 격화된 것이다. 결국 입시경쟁이 뒤로 미루어졌을 뿐, 완화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입학이 쉬워지면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급학교에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학력경쟁, 학벌경쟁은 학습하는 것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이 뒤로 미루어져도 경쟁에서 이

기기 위한 노력은 줄지 않았다(강일국, 2010).

1980년대 군부정권은 7·30교육개혁방안을 통한 사교육대책을 발표하였다. 과외전면금지와 본고사폐지, 그리고 졸업정원제가 그 내용이다. 과외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대학입시제도와 대학 학사운영을 개편하는 총체적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이 제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졸업정원제는 사회정서상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으며, 입시제도 또한 눈치작전, 정원미달, 대학서열화 등의 문제를 낳았다. 과외전면금지 또한 불법과외, 고액과외 등이 성행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 강압적 금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일국, 2010).

1990년대 들어서 사교육 원천 금지 정책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후 사교육 참여율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1979년 6.23%에서 1989년 14.9%로 증가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 급속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75%에까지 이르게 된다. 1994년에는 대학별 본고사가 실시되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내신 성적, 수능, 본고사 등의 수업부담을 주었고, 1년 만에 1997년 폐지할 것이 선언되는 상황을 맞았다. 1995년에는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다.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평가제도 안에서 많은 평가를 준비하느라 더 많은 사교육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 정부는 다양성을 더 강조하였다. 교육의 획일성과 고교평준화로 인해 다양성이 약해짐을 문제 삼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교육계층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사교육이 심해진다고 본 것이다. 특성화학교를 확대하고 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획일적인 대입시험을 없애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학은 본고사 형태의 논술고사나 심층면접을 강화했고, 학생들 또한 학교에서의 특기적성 교육으로는 특기적성을 개발하기 부족했다(강일국, 2010).

참여정부는 본고사, 고교서열화,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학입시제도에서의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내신등급제와 수능등급제의 2008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논술에 대한 부담까지 낳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1년 만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EBS수능방송과 같은 정책은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강일국, 2010). 참여정부는 2004년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여, 사교육의 폐해가 사교육 수요를 창출하는 악순환 구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근원적 해결책을 도모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사교육 수요는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2007년 3월 20일 발표한 ‘사교육 실태 및 대책’에서는 사교육 시장을 분석하고 그 동안의 정책을 보완하였다(이종재 외, 2008).

이명박 정부는 교육평등을 위한 정책보다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는 서울시의 밤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 정책이 있다. 학원 운영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과외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은 규제할 수 없었다(강일국, 2010).

박근혜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없애므로써 문제를 줄이고자 하였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학교는 지필평가나 수행평가, 또는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교육부, 2014).

제 2 절 사교육 정책의 유형

사교육 문제 해결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나타난 사교육 정책들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사교육 정책의 유형은 크게 입시경쟁 제거형, 사교육 규제형, 공교육 내실화형, 그리고 사교육 제공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종재 외, 2008).

입시경쟁 제거형은 사교육의 수요가 입시 경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입시경쟁을 제거하여 사교육을 억제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1968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와 1973년 고교 평준화 정책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 대책들은 사교육 수요를 경감시키기 위한 섬세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보다, 입시경쟁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종재 외, 2008; 김영철, 양승실, 김영화, 이주호, 2001). 입시경쟁의 제거는 다음 상급학교의 입시경쟁을 과열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다음은 사교육 규제형이다. 사교육 문제는 교육적 접근으로 해결이 어려우므로, 사회문제와 같이 법적 구속력과 정치적 결단에 의지하여 접근하는 것이다(이종재 외, 2008; 김동석, 2000). 이 유형의 예로는 7·30 교육개혁조치의 과외전면 금지가 있다. 이 유형은 사교육 욕구의 배경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 없이 욕구자체를 인위적으로 규제하여 일시적 효과만 나타났을 뿐, 장기적으로 교육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이종재 외, 2008; 김영철, 양승실, 김영화, 이주호, 2001).

세 번째 유형은 공교육 내실화형이다. 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원인이 공교육의 부족함에 있음을 전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즉, 사교육 문제해결의 방향을 사교육을 수용하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가져오는 근본적 요인을 해결하는 것에 두되 이러한 해결이 곧 공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이종재 외, 2008;

이종재, 최상근, 김현진, 2004). 공교육이 내실화되어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킨다면, 사교육으로의 수요를 줄여 사교육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마지막 유형은 사교육 제공형이다. 이는 사교육 유발요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교육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에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공교육 체제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사 사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평등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예로는 교육방송제공과 방과후 교육활동 등이 있다.

<표 1 사교육 대책 유형별 특징 비교>

	입시경쟁 제거형	사교육 규제형	공교육 내실화형	사교육 제공형
사교육에 대한 관점	사교육 억제	사교육 억제	사교육 수용	사교육 수용
배경 논리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중시하는 입장	평등주의	자유주의	인적자본론
문제점 규정	과열된 입시 경쟁	교육 기회의 불평등	공교육 부실	교육투자의 부족과 격차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원인 요법	대증 요법	원인 요법	대증 요법
정책 수단	무시험 입학 전형, 고교 평준화 정책	과외 금지 조치	공교육 여건 개선, 교육 과정 개선 등	방과후 학교, EBS
결과	대학진학 예비교육으로 중등교육 성격변화	비밀 과외 등 위협수당추가로 인한 과외비 인상	제한된 개혁으로 개혁의 악순환 초래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효과

*출처: 이종재, 장효민(2008)

제 3 절 사교육 현황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4천원으로 전년 24만 2천원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는 20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1.5% 감소했지만, 사교육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사교육을 아예 받지 않은 학생들은 사교육비가 0원으로 측정되어 계산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여겨진다.

<표 2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구 분	2011년	2012 년	전년대비	2013 년	전년대비	2014 년	전년대비	2015 년	전년대비
사교육비(만원, %)	24.0	23.6	-1.7	23.9	1.3	24.2	1.1	24.4	1.0
(실질)	23.1	21.6	-6.5	21.0	-2.8	20.7	-1.5	20.4	-1.5
초등학교	24.1	21.9	-9.1	23.2	5.9	23.2	0.0	23.1	-0.4
중학교	26.2	27.6	5.3	26.7	-3.3	27.0	1.2	27.5	1.9
고등학교	21.8	22.4	2.8	22.3	-0.4	23.0	2.9	23.6	2.9

*출처: 통계청(2015).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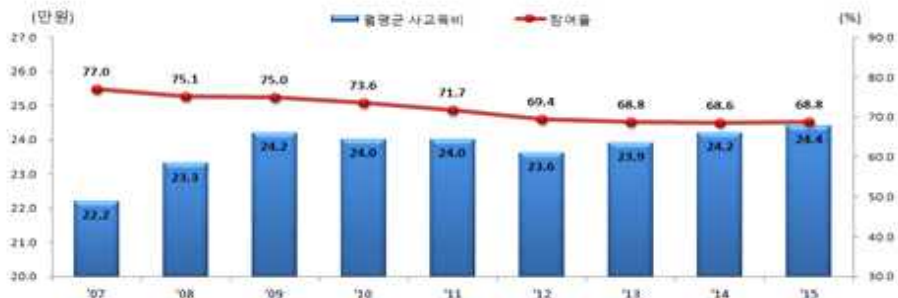
사교육 참여율은 68.8%로 전년에 비해 0.2%p 증가하였다.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상급학교로 갈수록 낮아진다.

<표 3 사교육 참여율>

구 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2013년	전년대비	2014년	전년대비	2015년	전년대비
참 여 율(% , %p)	71.7	69.4	-2.3	68.8	-0.6	68.6	-0.2	68.8	0.2
초등학교	84.6	80.9	-3.7	81.8	0.9	81.1	-0.7	80.7	-0.4
중학교	71.0	70.6	-0.4	69.5	-1.1	69.1	-0.4	69.4	0.2
고등학교	51.6	50.7	-0.9	49.2	-1.5	49.5	0.3	50.2	0.7

*출처: 통계청(2015).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그림 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출처: 통계청(2015).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제 3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학교팽창이론-지위경쟁이론

학교에 들어가는 인구가 많아져 학교가 팽창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학력이 계속하여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 학습욕구이론, 기술기능이론, 마르크스이론, 그리고 지위경쟁이론 등이 있다.

학습욕구이론은 인간이 학습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학교를 간다고 설명한다.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에 의하면 인간이 생물적 및 사회적 존재로서의 생존만 확보되면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학습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나 교육을 받으려 한다. 그리고 학교가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관인 것이다. 이 이론의 약점은 오늘날의 학교가 학습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라이머(Reimer)와 일리치(Illich)는 학교가 가진 보호, 선발, 교화, 학습의 네 가지 기능 중 학습의 기능을 가장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김신일, 2009). 사교육으로의 수요를 이 이론에 대입하여 분석할 경우, 사람들이 학교(공교육)에서 학습욕구를 충족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사교육에의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공교육이 사람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주도록 변화해야한다. 이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대체관계로 보며, 사교육대책 유형 중 공교육

내실화 유형이 이에 속한다.

기술기능이론은 클락(Clark)의 이론으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수준이 상승하면서 이에 상응하여 교육수준이 높아져 학력이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이론은 학교제도와 직업세계가 상호 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취업을 위한 교육의 수준이 계속하여 높아지고, 이러한 결과로 학교가 팽창한다고 보았다. 이 이론의 약점은 과잉학력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이 생산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학력이 높을수록 생산성 또한 높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고학력자들의 낮은 수준의 일자리 취업과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마르크스이론은 학교팽창의 원인을 자본가 계급의 이익으로 꼽았다. 경제적 재생산론자인 보울즈와 진티스(S. Bowles & H. Gintis)는 마르크스이론에 근거하여, 학교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주의 입맛에 맞는 기술 인력을 키우고 자본주의에 적합한 사회규범을 주입시키는 핵심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이 이론은 학교교육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부정적 측면을 지적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육을 자본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학습자 개인의 이익을 무시했다는 것, 그리고 교육을 수단적 기능의 관점에서만 파악했다는 것에서 한계를 갖는다(김신일, 2009).

지위경쟁이론은 학력이 사회적 지위획득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고자 하여 학력이 계속 높아진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R.Collins).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단계라도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적 지위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높은 학력을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

이다. 현대의 업적주의 사회에서 학력증명(졸업장)은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인된 증명서 역할을 한다. 남보다 높은 학력취득을 위한 경쟁이 벌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Dore는 ‘졸업장병’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의 관심은 교육내용이 아니라 졸업장에 집중되기 때문에 학력은 직업세계의 기술수준과 무관하게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학력의 평가 절하 현상인 ‘학력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그리고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학들 간 층화 현상과 학벌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이 이론은 학교교육의 확대를 경쟁의 결과로만 파악하고 학교교육의 내용적 면은 무시했다는 것과 경쟁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한 것, 그리고 교육공급자의 영향력을 무시했다는 약점을 갖는다(김신일, 2009). 그러나 학교팽창을 설명하는 이론들 중 현재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위재와 지위경쟁

Hood(1994)는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는 공공재의 공급이 매우 부족하지만 경제발전이 어느 수준에 오르게 되면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공공재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재 공급이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남과 자신을 구별해주는 재화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를 지위재라고 하는데, 명품소비가 그 예이다(하연섭, 2015).

지위재의 개념을 정립한 Hirsch(1976)는 물질재(material good)와 지위재(positional good)를 구분했다. 물질재는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재화들을 말하며, 반면 지위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대체재의 존재 여부나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그 상대적 가치가 결정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환경, 교통, 교

육, 일자리 등이 있다.

물질재로 인한 경쟁은 공급을 확대하면 완화된다. 그러나 지위재는 상대적 서열을 뜻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경쟁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늘 제로섬 게임의 특징을 갖게 된다. 물질재에 대한 욕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사람들은 더 나은 대학교육, 더 좋은 일자리, 편리한 주거와 쾌적한 환경 등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된다. 그런데 지위재는 절대적 소유 여부보다 다른 이들과의 비교로 인한 것이어서 그 효용이 늘 상대적이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을 들 수 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이 25%에서 85%로 급증했다. 1990년대 초반 대학 설립 준칙주의 도입으로 대학교육의 공급을 무한정 늘리는 정책이 본격화된 후,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 경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이다. 대학 진학 자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대학 그리고 어느 전공으로 가느냐에 대한 경쟁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명문 대학 입학 경쟁이 치열해졌고, 선행학습 경쟁을 통해 그 파급 효과가 고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입시경쟁은 대학졸업이후 일자리경쟁으로 이어진다(이재열, 2015).

Hirsch(1976)에 의하면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위재에 대한 지출이 더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교육도 이러한 지위재의 성격을 갖는다.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위재는 희소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된 가치도 희소하며, 이것의 배분은 선별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으로부터 얻는 효용은 단순히 교육에 얼마만큼 투자했는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투자했는가에 좌우되게 된다. 이렇게 교육이 지위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교육을 둘러싼 경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성취향상

은 곧 다른 사람의 상대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하연섭, 2015).

3. 사교육의 정의

사교육은 정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사교육을 국가 공교육의 공공성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사교육은 사립학교 교육으로 정의된다. 이는 좁은 의미의 사교육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사교육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개인·그룹과의 수업 및 학원 교육 등과 같은 각종 학교 외 교육으로 정의된다(윤정일, 1998; 윤종혁, 2003; 임천순 외, 2004). 대부분 사교육은 넓은 의미의 사교육의 정의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의 사교육의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의 정의 또한 위에서 정의한 ‘사교육’에 쓰이는 비용인 것으로 한다. 사교육비의 정의도 공교육비와 비교되어 정의되어 왔다. 사교육비는 학생들의 교재비, 사설 학원비 등과 같이 철저히 개인의 자유 계획에 의해 집행이 되는 경비를 뜻한다. 공교육비는 학생이 내는 납입금과 같이 부담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그 집행은 학교나 정부의 공공 회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용자에 한해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거의 조세와 같은 원칙에 의해 집행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공은배·천세영, 1989; 김인숙·여정성, 1996). 한국소비자보호원(1993)에서는 사교육비를 학교 교육을 제외한 과외교육비와 특기 재능을 위한 학원비 등으로 규정하였다(김인숙·여정성, 1996).

4. 사교육과 학업성취도 효과

사교육의 학업성취도 효과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사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더 나은 학업성취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사교육이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를 낸다는 것을 확실히 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학업성취 효과를 위한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이수정·임현정, 2009).

이와 또 다른 관점은 신제도주의적 해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사교육 현상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만 비롯된 것이 아닌, 사교육 이용이 ‘당연시’되는 사회 풍토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즉, 이러한 사회풍토 속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Baker & LeTendre, 2005; Stevenson & Baker, 1992). 즉, 학부모의 자녀 사교육비 지출 행위가 학업성취 향상 효과에 대한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 아닌 막연한 기대나 불안감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다고 하여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할 수 없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학교만족요인과 사교육

사교육 수요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학교에 대해 불만족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다는 관점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을 대체관계로 본다. 이를 학교팽창이론에 대입해보면 학습욕구이론에 가깝다. 학습욕구를 공교육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교육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질과 사교육 참여의 관계 분석 결과, 교사들의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평균 연수시간과 학교의 시설과 여건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 교사의 열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정, 2008). 교사의 학교에 대한 평가, 연수시간, 그리고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사교육 참여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는 것은 학교내부의 요소가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에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주는 학교특성에 대한 메타분석적 접근 연구 결과, 사교육 수요는 학교특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교사열의, 학급당 학생수, 그리고 교육시설의 낙후 등이 사교육 수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송경오, 20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교사에 대한 개별 학생의 평가지수가 높고 교원의 평균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액이 적게 나타났으며,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되는 교과교실도 해당 과목의 사교육비 지출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희삼, 2009).

중학생의 사교육 수요 결정요인 분석 연구에서는, 학교평균 학부모의 학교불신 수준에 따라 사교육 참여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경근·황여정, 2009). 이와 관련한 다른 연구에서는 학부모들의 공교육 만족도가 낮을수록, 사교육 신뢰도가 높을수록 사교육에 대한 구매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강인원·전성일, 2003). 이와 같이,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가 떨어질수록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교육 과열지역 학부모들의 「3·20 사교육 의존도 완화 방안」에 대한 반응 분석 결과에서, 정책들 가운데 공교육 내실화 지속추진 정책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 점(한신일·박진은·김현철, 2011)도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정도가 사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영어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결정요인을 학부모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들은 우수한 영어능력을 갖춘 교사와 영어 전용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영어사교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미숙, 2010). 이러한 조건이 공교육에서는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교육으로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정책이 의도와 달리 사교육 시장의 성장과 팽창에의 주요인이 된 현상에 대하여, 사교육 진화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입시체도가 생기면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적 수요가 나타나는데 공교육제도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공교육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공교육의 특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공교육에서 만족을 얻기 어렵고 따라서 사교육 수요가 발생하게 과정을 겪는 것이다(여영기·엄문영, 2015).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나 만족도가 낮을수록 사교육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해 공교육내

실화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교원양성방식개선, 학생중심 교원평가제, 수준별 수업 운영(김희삼, 2009)과 같은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또한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로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우수교원 확보, 수업·평가방법 개선, 진로지도 강화, 그리고 기초학력책임지도제(서춘래, 2003)를 제시한다.

2. 지위경쟁요인과 사교육

지위경쟁이론을 사교육으로 대입시켜보면, 학교만족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성적을 받고 더 나은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교육을 받는다. 즉, 지위경쟁이 사교육수요로 작용하는 것이다. 학교만족요인을 사교육수요로 보는 입장에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대체관계로 보는 것과 달리, 지위경쟁요인을 사교육 수요로 보는 입장에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보완관계로 본다고 할 수 있다.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사교육 수요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할수록 대체적으로 사교육 수요는 감소하지만 그 영향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의 특성들 가운데 대부분은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학교만족요인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의 사교육 수요의 상당 부분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순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투자임이 나타났다(박철성, 2011).

학교 불만족과 특목고 진학 경쟁이 사교육 시간과 비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중학생의 학교 불만족 변인은 사교육 시간이나 비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진학 경쟁 변인은 지속적으로 사교육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목고 진학 경쟁을 하였던 중학생들은 경쟁이 종료된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는 사교육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유발 요인은 학교 불만족보다 진학을 위한 경쟁에 있음을 시사한다(김성식·송혜정, 2009). 중학생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계획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도,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일반고에 진학하려는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유의하게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정·이준호, 2009). 이와 같이 진학 경쟁이 사교육수요의 주요인임을 알 수 있다.

게임이론에 기초한 입시과외 수요 분석 결과, 입시과외행위는 상대방의 행동을 고려한 전략적 의사결정임이 확인되었다. 학부모의 전략적 의사결정수준을 나타내는 ‘경쟁학생 중 과외를 받는 학생의 예상비율’, ‘가상의 대입과외게임에서의 선택전략’이 입시과외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김지하·백일우, 2006).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이 개인적 측면에서의 학습보충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경쟁에서 더 나은 입지에 있기 위한 선택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명문대 중심 대입관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계 분석 결과에서도 사교육 참여 원인이 공교육의 질이나 학생성적과 같은 문제보다는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인 “명문대 중심 대입관”에 더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정, 2007).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은 성적을 향상시키고, 명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이수정, 2007; 정영숙 1996) 사교육은 부모들의 주요한 계급 재생산 또는 상향이동 전략이고, 지위경쟁의 장이 된다(김위정·염유식, 2009). 이러한 사교육의 지위경

쟁적 특성으로 인해, 사교육 소비는 전체소비지출 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사치재의 특성을 보인다(김미란, 2009).

사교육 수요가 공교육 문제로 인한 것보다 경쟁적 요소로 인한 것이 크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내세우는 것은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에서, 여러 정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정부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부 내신중심의 대입전형은 사교육비를 크게 증가시켰고, 이명박정부의 입학사정관제와 박근혜정부의 학생부위주전형 확대도 공교육 내실화 효과는 있었으나, 수능사교육비가 내신사교육비로 대체될 뿐 사교육비를 줄이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선희, 2015).

3. 사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학교만족요인과 지위경쟁요인 이외에 사교육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 이들은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다룰 것이다. 사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대표적으로 지역, 소득, 부모학력, 형제자매유무 그리고 학교유형이 있다.

지역은 사교육과 큰 상관성을 갖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평준화 중소도시 학생들보다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고,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정, 2008).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결과에서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변인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하게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현진, 2004).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중단

적 연구에서는 강남, 비강남, 경기도 신도시, 비신도시, 광역시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정호, 2005).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서울과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결과가 나왔다(송경오, 2013). 이와 같이 서울, 대도시에서 사교육수요가 크게 나타나며 사교육비도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간 사교육비 차이는 통계청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의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사교육비도 높게 나타난다. 이 또한 통계청의 조사결과로도 확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선행연구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사교육 수요 분석 결과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다고 나타났다(임친순·우명숙·채재은, 2008). 이 외의 연구들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김현진, 2004, 양정호, 2005, 노현경, 2006, 송경오, 2013, 김경근·황여정, 2009, 이주호·홍성창, 2001, 박현정·이준호, 2009, 김지하·백일우, 2006).

부모의 학력도 사교육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부모의 학력과 학생에의 사교육은 정(+)의 관계를 나타낸다(이주호·홍성창, 2001, 박현정·이준호, 2009, 김지하·백일우, 2006). 교육을 많이 받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학업성취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또한 교육성취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녀의 사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다(김경근·황여정, 2009; Bray and kwok, 2003; West et al, 1998).

형제자매유무도 학생의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친다. 자원희석가설(The resource dilution hypothesis)에 의하면 자원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한 명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소득이 한정되어 있는 입장에

서 사교육투자를 할 때 자녀가 많은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아이 한 명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적게 된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1인당 사교육 지출 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백일우, 1996b, 유형선·윤정혜, 1999, 채창균, 2006, Dang 2007, Ireson, 2004, Kim and Lee, 2004, Tansel and Bireon, 2006).

학교유형도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유형 변수는 그 특성상 고등학생 연구에만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와 같이 진학보다 취업과 사회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학입시경쟁과는 큰 관련이 없다. 그만큼 입시경쟁에의 사교육수요도 다른 학생들보다 적기 마련이다. 한편, 특목고나 자사고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입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만큼 대학교입시에의 관심과 경쟁에의 적극성 정도가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유형도 사교육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4.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부모의 소득과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부분이다.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갖고 있다(권승, 2008). 가족의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 이웃환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가족의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이 학생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혁, 2008).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임이 확인되었다(원지영, 2009). 또한 빈곤과 경제적 박탈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인회·박현선·정익중, 2006, 김광혁, 2007).

학업성취도는 지역에 따라 명확한 격차를 보인다. 2016년 서울대 신입생 고교별 등록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교와 자립형 사립고가 강세를 보였으며, 등록 상위 합격 고교 20위 중 16개교가 서울 소재 고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16개 일반고교 중 10곳이 강남, 목동 지역의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서울대 신입생 중 특목고, 자사고, 강남 3구 고교 출신 비율은 49.1%로 거의 절반에 달해 지역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중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상위 100개교 중 서울 학교가 42개교, 수도권 소재 학교는 73개교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이를 증명한다.

부모의 학력도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업성취효과 분석연구에서도 부의 학력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되어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김태일, 1997). 실제 서울대 신입생 보고서에서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인 학생은 83.1%, 어머니 학력이 대졸 이상인 학생은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학력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베리타스알파, 2013).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앞에서 언급한 지역·소득·부모학력과 같은 학생의 배경적 변인 이외에도 학생의 개인적 변인도 존재한다. 성취가치, 학업시간관리, 자기공부시간이 그 변인들이다.

성취가치는 학생의 학업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D. McClelland는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보다 성공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Wigfield와 Eccles의 기대가치이론에 의하면 성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목표가 자신에게 주는 가치에 대한 판단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였다. 과제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득이나 보상 또는 혜택을 가치라고 하는데, 이를 학습에 대입하면 학생들이 자신이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과가 가치 있다고 생각할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학습동기 변인들과 인지전략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에서 과제가치변인이 다른 변인들보다 학업성취에 대한 설명변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순미, 2004).

학습시간 관리와 자기공부시간도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아무리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하여도 학생이 스스로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김진영,2007;김희삼,2010,2011;한수경 외, 2015). 사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이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생의 수학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자기주도 학습 시간(학생노력변인)이 다른 변인보다 학업성취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수경 외, 2015).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사교육비 효과 분석 연구에서도 학습동기와 학습시간과 같은 개인학습활동 관련 요인이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이수정·임현정, 2009).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단순히 학생의 배경요인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노력·습관·행동과 같은 요인의 영향도 받으므로 위의 변수들도 통제해주어야 더 정확한 결과를 볼 수 있다.

5.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여럿 있었으나,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초·중·고 3619명의 설문자료와 경기도 경제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원·개인과외·그룹과외·학습지의 다양한 사교육 활동 중에 학습지 구독만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 학생의 심적 상태가 사교육 효과의 결정적 변인임을 밝혔다(임천순 외, 2004).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직전부터 10개월까지의 수학과 과외경험을 바탕으로 수학성적변화를 분석한 결과 과외경험량이 많은 집단이 수학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상경아·백순근, 2005; 이수정·임현정, 2009), 과외가 지능·노력·사회 환경 다음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이해명, 2001; 이수정·임현정, 2009), 과외가 학생의 수학성적을 향상시켜준다는 연구(오영수·윤정식, 2003; 이수정·임현정, 2009), 사교육 참여 학생이 국어·수학의 성취도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박현정 등, 2008), 그리고 사교육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수정·임현정, 2009)등이 있다.

이와 상반되는 결과로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학과외는 모의고사 수리탐구I 성적에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대동·성병창·길임주, 2001). 과외집단과 비과외집단의 성적변화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국·영·수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종태 등, 2002; 이수정·임현정, 2009). 또한 과외는 직접적

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며, 학업성취도는 학생 개인의 학습시간과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반상진 등, 2005).

사교육과 학업성취도의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는 대부분 학생의 가정배경을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그러나 학업성취도는 단순히 학생의 배경요인만이 아닌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학습시간과 같은 학생의 개인요인도 함께 통제해 주어야 한다(반상진 등, 2005; 이수정·임현정, 2009).

이렇게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중학생은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교육이 대학 진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으나(최형재, 2008), 대학진학과 학업성취도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이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대학진학이 학업성취도 순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 4 장 가설 설정 및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지위경쟁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교육 수요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최근에는 지위경쟁적 요인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반해, 사교육정책의 내용은 이를 고려하지 않아 그 효과가 적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위경쟁을 사교육의 주요인으로 설정하고, 실제로 지위경쟁성향이 사교육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설의 방향은 지위경쟁이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가설1. 지위경쟁성향은 사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부모의 교육열이 사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1. 부모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클 것이다.

1-1-2. 부모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다.

1-2. 학생의 대입관이 사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1. 학생의 대입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클 것이다.

1-2-2. 학생의 대입관이 높을수록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다.

1-3. 사교육을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이 사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1. 사교육을 받는 이유가 지위경쟁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클 것이다.

1-3-2. 사교육을 받는 이유가 지위경쟁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 지위경쟁이 사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학업성취도 향상은 사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지만, 실제로 사교육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교육이 학업성취도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교육소비는 목적을 달성하는 합리적 선택행위가 된다. 그러나 사교육이 학업성취도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현재의 사교육소비는 실제 효과측면이 아닌 심리적 안정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과열된 사교육이 실제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합리적 선택인지, 아니면 이와 상관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행하는 선택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지금의 무조건적인 사교육 참여 행태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다.

한편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이를 바로 사교육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원래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사교육을 받은 것인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의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전년도 대비 학업성취도 변화 또한 분석하기로 한다.

사교육수요에는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어있으며, 실제로 학생의 성적과 사교육경험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방향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사교육비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1. 사교육비 지출이 클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2-1-2. 사교육비 지출이 클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을 것이다.

2-2. 사교육시간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1. 사교육시간이 길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2-2-2. 사교육시간이 길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 설계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지위경쟁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중1패널의 3차년도와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패널별로 2300여명의 표본을 갖춘 이 조사는 지적발달·사회정서발달·생활시간 등의 개인발달 영역과 가정환경·교육환경·부모관계 등의 발달환경 영역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지는 학생용과 학부모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할 제3차 조사(2012)에서 기존 2351명 중 2259명의 조사에 성공하여 96.1%의 원표본 유지율을 보였다. 또한 제5차 조사(2014)에서는 2091명의 조사에 성공하여 각각 88.9%의 원표본 유지율이 나타났다.

연구의 시점은 패널의 3차(2012)와 5차(2014)자료로, 각각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시기이다. 각 자료를 통해서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의 결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다.

2. 변수의 선정

[모형1] 지위경쟁과 사교육

(1) 독립변수: 지위경쟁

독립변수는 지위경쟁이다. 여기서는 지위경쟁을 부모의 교육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중요시하는 학생의 대입관, 그리고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으로 설정하였다.

부모의 교육열은 ‘부모님께서서는 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지다.’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4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결과를 역코딩하여 값이 클수록 더 그러한 성향이 강한 것으로 조정하였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중요시하는 학생의 대입관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또한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값을 역코딩하여 값이 클수록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더 중요시함을 나타낸다.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은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나누어 더미 변수로 설정하였다.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으므로, 선행 학습을 하기 위해, 학교 성적의 향상을 위해’라고 답변한 경우는 지위경쟁성을 띠고 있으므로 1의 값을 부여하였다. 반면 ‘학교 수업 보충 차원으로, 취미 활동이나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로 답변한 경우는 지위경쟁적인 이유가 아니므로 0의 값을 부여하였다.

(2) 종속변수: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비중

종속변수는 사교육비와 전체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사교육비의 절대적 액수와 함께 사교육비가 전체 소득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파악해본다. 사교육비의 절대적 액수는 ‘지난 1년 동안 받은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의 월평균 교육비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에 대한 답변을 사용한다. 또한 사교육비 비중은 월평균 교육비를 연소득/12 값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월 소득에서 월평균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이 외에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인 소득, 지역, 부모학력, 형제자매유무 그리고 고등학교유형으로 한다.

소득은 ‘가구의 지난 일 년간 가구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에 대한 답변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log를 씌운 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으로 나누었다. 단, 경기도의 수원·고양·성남·용인은 인구규모가 대도시규모이므로 광역시에 포함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학교를 다닌 년도로 값을 변환하였다. 즉, 중학교 졸업은 9, 고등학교 졸업은 12, 전문대학교 졸업은 14, 대학교 졸업은 16, 그리고 대학원 졸업은 석사2년과 박사5년의 평균을 내어 19.5의 값을 부여하였다. 부와 모의 학력의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둘 중 한 명만 답변한 경우에는 평균을 내지 않고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형제자매유무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1의 값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고등학교유형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1, 일반고는 2, 그리고 자사고와 특목고는 3의 값을 부여하여, 값이 클수록 더 대입경쟁에 적극적이고 관심이 있는 학교 유형임을 표현한다.

[모형2] 사교육과 학업성취도

(1) 독립변수: 사교육비, 사교육시간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이 독립변수로 사용된다. 월평균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log를 취한 값을 사용하며, 사교육시간은 학생이 일주일 동안 총 사교육을 받은 시간을 합한 값이다.

(2) 종속변수: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 변화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종속변수이다. 각 과목별로 ‘자신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얼마나 공부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해 5점 척도로 답변한 값을 사용하였다. 척도를 역코딩하여 값이 클수록 학업성취도가 더 뛰어난 것으로 설정하였다. 입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실제로 평가되고 있는 국어·영어·수학 과목을 합한 값을 학생의 학업성취도로 정의하였다.

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는 올해의 학업성취도에서 전년도 학업성취도의 차로 한다. 이를 통해 1년 동안의 학업성취도 변화를 알 수 있다. 학업성취도만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경우,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 것인지 학업성취도가 좋은 학생이 사교육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종속변수에 학업성취도 변화도 추가하였다.

(3) 통제변수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지역, 부모학력, 성취가치, 학업시간관리 그리고 자기공부시간이 통제변수로 사용된다.

[모형1]과 마찬가지로, 소득은 ‘가구의 지난 일 년간 가구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에 대한 답변을 사용하며 log를 씌운 값을 사용한다.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으로 나누었다. 단, 경기도의 수원·고양·성남·용인은 인구규모가 대도시규모인 만큼 광역시에 포함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학교를 다닌 년도로 값을 변환하였다. 즉, 중학교 졸업은 9, 고등학교 졸업은 12, 전문대학교 졸업은 14, 대학교 졸업은 16, 그리고 대학원 졸업은 석사2년과 박사5년의 평균을 내어 19.5의 값을 부여하였다. 부와 모의 학력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둘 중 한 명만 답변한 경우에는 평균을 내지 않고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성취가치와 학업시간관리는 본 조사 변인 ‘학습습관’ 중 ‘성취가치’와 ‘학업시간관리’ 항목을 활용한다.

자기공부시간은 학생이 학교 숙제를 하는 시간, 학원 숙제를 하는 시간, 그리고 그 이외의 공부를 하는 시간을 합한 값으로 정의한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표 4 [모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설문 항목	척도, 조작적 정의
독립 변수	지위 경쟁	교육열	부모님께서서는 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시다	4=매우 그렇다 3=그런 편이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대입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1=전혀 그렇지 않다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 경쟁성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으므로/선행 학습을 하기위해/학교 성적의 향상을 위해 0=학교 수업 보충 차원으로/취미 활동이나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통제 변수	소득		가구의 지난 일 년간 가구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연속변수 (log변환)
	지역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4=특별시 3=광역시 2=중소도시 1=읍면
	부모학력		부모님의 교육 수준	19.5=대학원 졸업

			16=대학교 졸업 14=전문대학교 졸업 12=고등학교 졸업 9=중학교 졸업
	형제자매유무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1=있다 0=없다
	고등학교유형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3=자사고, 특목고 2=일반고 1=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종속변수	사교육비	지난 1년 동안 받은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의 월평균 교육비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연속변수(log 변환)
	사교육비 비중	$100 \times \text{사교육비} / \text{월 소득}$	연속변수

<표 5 [모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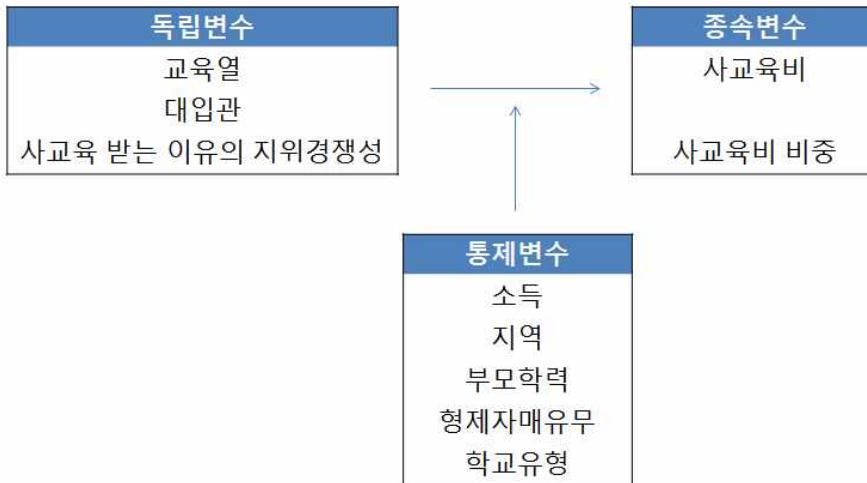
변수		설문 항목	척도, 조작적 정의
독립 변수	사교육비	지난 1년 동안 받은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의 월평균 교육비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연속변수(log 변환)
	사교육시간	학원(과외)에서 지내는 시간	연속변수
통제 변수	소득	가구의 지난 일 년간 가구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연속변수 (log 변환)
	지역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4=특별시 3=광역시 2=중소도시 1=읍면
	부모학력	부모님의 교육 수준	19.5=대학원 졸업 16=대학교 졸업 14=전문대학교 졸업 12=고등학교 졸업 9=중학교 졸업
	성취가치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4=매우 그렇다 3=그런 편이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

		<p>학교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p> <p>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p> <p>학교생활은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p>	
	학업시간관리	<p>나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한다</p> <p>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 계획을 세운다</p> <p>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공부 시간을 확실히 정해둔다</p> <p>나는 시험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부한다</p>	
	자기공부시간	<p>하루에 학교 숙제를 하는 시간 +</p> <p>학원(과외) 숙제를 하는 시간 +</p> <p>학교나 학원(과외) 숙제 이외에 공부하는 시간</p>	연속변수
종속변수	학업성취도	<p>각 과목(국어,영어,수학)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얼마나 공부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p>	<p>5=매우 잘했다</p> <p>4=잘한 편이다</p> <p>3=보통이다</p> <p>2=못한 편이다</p> <p>1=매우 못했다</p> <p>국영수 3과목의 합</p>
	학업성취도 변화	올해 학업성취도와 전년도 학업성취도의 차	올해 학업성취도 - 전년도 학업성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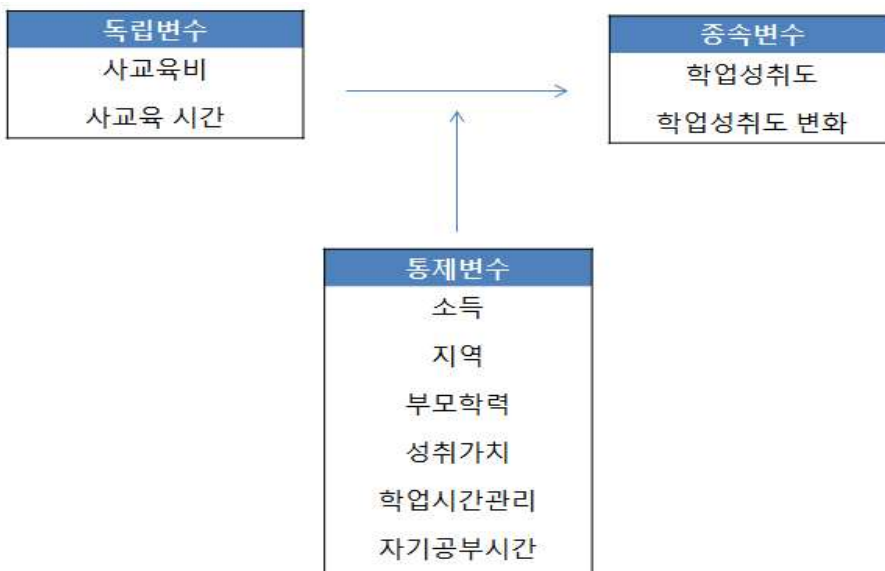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및 분석방법

1. 연구의 분석틀

<그림 2 [모형 1] 연구의 분석틀 >



<그림 3 [모형 2] 연구의 분석틀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위경쟁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지위경쟁은 부모의 교육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중요시여기는 학생의 대입관, 그리고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봄으로써 현재의 과열된 사교육에의 원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 후에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취도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목적은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실제로 사교육이 학생의 성적을 향상시켜준다면 이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현재 사교육의 효과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의 현재 사교육 행태는 사교육 효과와 상관없이 분위기에 휩쓸린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사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다.

[모형 1]

$$Y(\text{중학생 사교육비, 사교육비 비중}) = a + b_1 \text{ 교육열} + b_2 \text{ 대입관} + b_3 \text{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 + z_1 \text{ 소득} + z_2 \text{ 지역} + z_3 \text{ 부모학력} + z_4 \text{ 형제자매유무}$$

$$Y(\text{고등학생 사교육비, 사교육비 비중}) = a + b_1 \text{ 교육열} + b_2 \text{ 대입관} + b_3 \text{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 + z_1 \text{ 소득} + z_2 \text{ 지역} + z_3 \text{ 부모학력} + z_4 \text{ 형제자매유무} + z_5 \text{ 고등학교유형}$$

[모형 2]

$$Y(\text{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 변화}) = a + b_1 \text{ 사교육비} + b_2 \text{ 사교육 시간} + z_1 \text{ 소득} + z_2 \text{ 지역} + z_3 \text{ 부모학력} + z_4 \text{ 성취가치} + z_5 \text{ 학업시간관리} + z_6 \text{ 자기공부시간}$$

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모형1] 지위경쟁과 사교육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월평균 사교육비와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으로 설정하였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 1년간 학생에게 사교육으로 지출한 평균 비용이며, 만 원 단위의 연속변수로 측정되었다.

중학생의 사교육비 측정 관측치는 1652개이며, 최댓값은 200만원으로, 최솟값은 0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의 수치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정규성을 벗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로그변환을 하였다. 변환된 사교육비의 최댓값은 2.30, 최솟값은 -1이며 평균은 1.3965이다.

중학생의 사교육비 비중 측정 관측치는 1624개이며, 최댓값은 48.00이며 최솟값은 0으로 나타났다.

<표 6 사교육비·사교육비 비중의 기술통계분석 결과(중학생)>

	사교육비	Log사교육비	사교육비 비중
관측치	1652	1652	1624
평균값	35.69	1.3965	9.5437
표준편차	22.045	0.5478	6.3091
최솟값	0	-1	0
최댓값	200	2.30	48.00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측정 관측치는 1162개이며, 최댓값은 250만원, 최솟값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 변환된 사교육비의 최댓값은 2.40, 최솟값은 -1이며 평균은 1.5255이다.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비중 측정 관측치는 1142개이며, 최댓값은 48.00이고 최솟값은 0으로 나타났다.

<표 7 사교육비·사교육비 비중의 기술통계분석 결과(고등학생)>

	사교육비	Log사교육비	사교육비 비중
관측치	1162	1162	1142
평균값	43.43	1.5255	10.9045
표준편차	29.054	0.3866	8.4263
최솟값	0	-1	0
최댓값	250	2.40	48.00

2. 독립변수

(1) 교육열

교육열은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지 않다.’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중학생 때 2349명, 고등학생 때 2108명이 응답하였다. 두 경우 모두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제일 높았다.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응답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비율이 하락했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약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일 때보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부모의 교육열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학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영향보다 학생 스스로의 자기주도성을 갖는다는 선행 연구와 방향이 일치한다.

<표 8 교육열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교육열	중학생	고등학생
관측치	2349	2108
매우 그렇다	19.2%	9.5%
그런 편이다	33.4%	31.3%
그렇지 않은 편이다	34.7%	43.9%
전혀 그렇지 않다	12.8%	15.3%
평균	2.59	2.35

(2) 대입관

대입관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중학생 때 2258명, 고등학생 때 2091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두 경우 모두 과반을 넘어 (중학생 76.0%, 고등학생 64.0%)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비율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12% 하락하였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좋은 대학에 가야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중학생 때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입시가 가까워지면서 현재의 성적에 따라 목표를 변경하거나, 입시경쟁과 상관없는 진로로 가는 등의 경우로 인해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대입관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대입관	중학생	고등학생
관측치	2258	2091
매우 그렇다	32.6%	20.7%
그런 편이다	43.4%	43.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4%	28.5%
전혀 그렇지 않다	4.7%	7.5%
평균	3.04	2.77

(3)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은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위경쟁성을 띠는 경우(1)와 그렇지 않은 경우(0)로 나누었다. 선택문항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으므로’, ‘선행 학습을 하기 위해’, ‘학교 수업 보충 차원으로’, ‘학교 성적의 향상을 위해’, 그리고 ‘취미 활동이나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대

부분의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으므로, ‘선행 학습을 하기 위해’, ‘학교 성적의 향상을 위해’는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과 입시를 바탕으로 한 성격을 띠므로 지위경쟁성을 갖는 것으로, ‘학교 수업 보충 차원으로’와 ‘취미 활동이나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중학생 때 1659명, 고등학생 때 1224명이 응답하였다. 지위경쟁성을 띠는 이유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고등학생이 되면서 비율이 증가하였다. 중학생 때는 학교성적향상, 상급학교진학, 학교수업보충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상급학교진학, 학교성적향상, 학교수업보충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10 사교육 받는 이유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		중학생		고등학생	
관측치		1659		1224	
지위경쟁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23.1%	75.4%	41.5%	77.2%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3.5%		3.9%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12.2%		7.5%	
	학교성적향상을 위해	36.6%		24.3%	
비지위경쟁성	학교수업보충차원으로	19.9%	24.4%	13.1%	21.8%
	취미활동이나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	4.5%		8.7%	
평균		0.76		0.78	

3. 통제변수

(1) 소득

소득은 ‘가구의 지난 일 년간 가구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만 원 단위의 연속변수로 측정되었다. 중학생 때 2180명, 고등학생 때 1973명이 응답하였다.

<표 11 소득의 기술통계분석 결과(중학생)>

	소득	Log소득
관측치	2180	2180
평균값	4684.66	3.5937
표준편차	2719.06	0.3366
최솟값	0	-1
최댓값	40000	4.60

<표 12 소득의 기술통계분석 결과(고등학생)>

	소득	Log소득
관측치	1973	1973
평균값	4685.84	3.6051
표준편차	2545.18	0.2545
최솟값	100	2.00
최댓값	20000	4.30

(2) 지역

지역은 특별시(4)·광역시(3)·중소도시(2)·읍면(1)으로 나누었다. 중학생 때 2349명, 고등학생 때 2031명이 응답하였으며 중소도시와 광역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평균값은 2.40에서 2.39로 변화하여, 기간 동안 지역 간의 큰 이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3 지역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지역	중학생	고등학생
관측치	2349	2031
특별시	9.5%	8.5%
광역시	35.2%	35.6%
중소도시	41.0%	42.2%
읍면	14.3%	13.7%
평균	2.40	2.39

(3) 부모학력

부모학력은 부모의 최종학력을 말하며 부와 모의 값을 평균 내었다. 한 명만 응답한 경우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를 다닌 년도가 평균 13.9년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표 14 부모학력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부모학력	중학생		고등학생	
	부	모	부	모
관측치	2053	2086	1866	1899
대학원 졸업	5.0%	1.8%	4.8%	1.7%
대학 졸업	40.3%	30.6%	40.2%	30.9%
전문대학 졸업	10.1%	10.1%	9.7%	10.6%
고등학교 졸업	40.8%	54.3%	41.7%	53.8%
중학교 졸업	3.8%	3.2%	3.6%	3.0%
평균	13.906		13.899	

(4) 형제자매유무

대부분의 학생들이 형제자매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를 1로,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를 0으로 설정한 더미변수이다. 평균이 0.91로 높게 나타났으며, 형제자매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0% 미만이었다.

<표 15 형제자매유무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형제자매유무	중학생	고등학생
관측치	2225	2031
있다	90.8%	91.3%
없다	9.2%	8.7%
평균	0.91	0.91

(5) 고등학교유형

학교유형은 고등학생에만 해당되며, 입시보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부터 입시경쟁에 더 적극성을 띠는 특목고와

자사고까지 분포되어 있다. 일반고가 6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20.7%, 그리고 특목고와 자사고는 15.4%의 비중을 나타낸다.

<표 16 고등학교유형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고등학교유형		고등학생	
관측치		2046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1.4%	20.7%
	특성화 고등학교	19.3%	
일반고	일반고등학교	63.7%	63.7%
특목고 자사고	특목고 과학외국어계열	1.3%	15.4%
	특목고 예술체육계열	1.5%	
	자율형 고등학교	12.6%	
평균		1.93	

[모형2] 사교육과 학업성취도

1. 종속변수

본 모형에서는 종속변수로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취도 변화로 설정하였다. 학업성취도는 학생의 국·영·수 성적의 합으로, 각 과목별로 5단계의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최솟값 3부터 최댓값 15까지 분포되어있다. 학업성취도 변화는 금년의 학업성취도에서 전년도의 학업성취도를 뺀 값이다.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관측치는 2257개이며, 평균값은 8.629인 것

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변화 관측치는 2222개이며, 평균값은 -0.36이다. 최솟값은 -10이며 최댓값은 9이다.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도 관측치는 2032개로, 평균값은 8.776이다. 학업성취도 변화 관측치는 1946이며 평균값은 0.022로 중학생의 경우와 달리 정의 방향을 나타냈다. 최솟값은 -9이며 최댓값은 10이다.

<표 17 학업성취도·학업성취도 변화의 기술통계분석 결과(중학생)>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 변화
관측치	2257	2222
평균값	8.629	-0.36
표준편차	2.943	2.28
최솟값	3.00	-10.00
최댓값	15.00	9.00

<표18학업성취도·학업성취도 변화의 기술통계분석 결과(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 변화
관측치	2032	1946
평균값	8.776	0.022
표준편차	2.324	2.02
최솟값	3.00	-9.00
최댓값	15.00	10.00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으로,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 1년간 학생에게 사교육으로 지출한 평균 비용을 말한다. 사교육시간은 1주일동안 학생이 사교육 받는 시간을 합한 값이다.

중학생의 사교육비 추정 관측치는 1652개이며, 최댓값은 200만원, 최솟값은 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그로 변환한 값을 사용한다. 사교육시간 추정 관측치는 2256개이며, 최댓값은 44시간, 최솟값은 0시간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8.1732시간이다.

<표 19 사교육비, 사교육시간의 기술통계분석 결과(중학생)>

	사교육비	Log사교육비	사교육시간
관측치	1652	1652	2256
평균값	35.69	1.3965	8.646
표준편차	22.045	0.5478	8.1732
최솟값	0	-1	0
최댓값	200	2.30	44.00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추정 관측치는 1162개이며, 최댓값은 250만원, 최솟값은 0원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로그로 변환한 값을 사용한다. 사교육시간 추정 관측치는 2046개이며, 최댓값은 50시간, 최솟값은 0시간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8.3748시간이다.

<표 20 사교육비, 사교육시간의 기술통계분석 결과(고등학생)>

	사교육비	Log사교육비	사교육시간
관측치	1162	1162	2046
평균값	43.43	1.5255	6.131
표준편차	29.054	0.3866	8.3748
최솟값	0	-1	0
최댓값	250	2.40	50.00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소득, 지역, 부모학력, 성취가치, 학업시간관리 그리고 자기공부시간이다. 소득, 지역, 부모학력은 [모형1]의 값과 동일하다. 성취가치와 학업시간관리는 1에서 4까지의 값을 가지며, 중학생 때 각각 2.908, 2.540의 평균값을 보인다. 고등학생 때는 각각 2.894, 2.472로 다소 값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자기공부시간은 일주일 동안 자기 혼자서 공부한 시간으로 중학생 때는 평균 14.062시간, 고등학생 때는 평균 16.419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21 학생개인변인의 기술통계분석 결과(중학생)>

	성취가치	학업시간관리	자기공부시간
관측치	2256	2257	2183
평균값	2.908	2.540	14.062
표준편차	0.594	0.668	11.194
최솟값	1.00	1.00	0.00
최댓값	4.00	4.00	64.5

<표 22 학생개인변인의 기술통계분석 결과(고등학생)>

	성취가치	학업시간관리	자기공부시간
관측치	2052	2052	2003
평균값	2.894	2.472	16.419
표준편차	0.547	0.628	12.845
최솟값	1.00	1.00	0.00
최댓값	4.00	4.00	66.00

제 2 절 다중회귀분석

1. 신뢰성 분석

다른 변수들과 달리 성취가치와 학업시간관리는 하나의 문항이 아닌 여러 개의 문항에 대한 답변의 평균으로 이루어져 있다. 같은 변수를 측정하는 여러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이 비슷한 응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응답자들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뢰성분석을 통해 응답자들이 답변에 일관성을 갖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신뢰도를 판단하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다. 값이 0.7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모두 성취가치와 학업시간관리 문항에 0.8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신뢰성분석 결과>

	중학생	고등학생
성취가치	0.889	0.875
학업시간관리	0.857	0.859

2. 다중공선성 진단

다중회귀분석은 변수가 여러 개이므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면 한 설명변수의 변화가 다른 설명변수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하는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고길곤, 2014).

(1) 상관관계분석

다중공선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상관관계분석이 있다.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선성 문제가 높으며, 값이 0.7이상인 경우 강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으며 0.4이상인 경우 약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모형1]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사교육비와 지위경쟁적 요소(교육열, 대입관, 사교육 받는 이유)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학생의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사교육경험여부와 학업성취도, 그리고 사교육경험여부와 학업성취도 변화 둘 다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둘 다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 경험여부와 학업성취도변화 간에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형1] 중학생의 \log 사교육비와 사교육비비중이 0.528의 값을, [모형2]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log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이 각각 0.679, 0.657의 값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강한 다중공선성 기준인 0.7보다 낮은 값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24 [모형 1]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중학생)>

	log사교육비	사교육비 비중	교육열	대입관	사교육 받는 이유 의 지위경정성	log소득	지역	부모학력	형제자매유무
log사교육비	1.000								
사교육비 비중	0.528**	1.000							
교육열	0.078**	0.037	1.000						
대입관	0.071**	0.013	0.044*	1.000					
사교육 받는 이유 의 지위경정성	0.179**	0.134**	0.020	0.042	1.000				
log소득	0.373**	-0.367**	0.063**	0.065**	0.016	1.000			
지역	0.262**	0.130**	0.003	0.015	0.046	0.117**	1.000		
부모학력	0.192**	-0.117**	0.033	0.050*	0.002	0.429**	0.152**	1.000	
형제자매유무	-0.35	-0.49*	0.010	-0.025	0.013	0.071**	-0.039	-0.031	1.000

*p<0.05, **p<0.01

<표 25 [모형 1]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고등학교)>

	log사교육비	사교육비 비중	교육열	대입관	사교육 받는 이유 의 지위경정성	log소득	지역	부모학력	형제자매유무	학교유형
log사교육비	1.000									
사교육비 비중	0.482**	1.000								
교육열	0.094**	-0.011	1.000							
대입관	0.140**	0.041	0.085**	1.000						
사교육 받는 이유 의 지위경정성	0.205**	0.040	0.039	0.033	1.000					
log소득	0.420**	-0.393**	0.106**	0.118**	0.127**	1.000				
지역	0.250**	0.233**	0.024	0.051*	0.005	0.090**	1.000			
부모학력	0.224**	-0.063*	0.076**	0.058*	0.107**	0.417**	0.143**	1.000		
형제자매유무	-0.063	-0.089**	-0.009	-0.002	-0.004	0.081**	-0.051*	-0.018	1.000	
학교유형	0.210**	0.111**	0.072**	0.137**	0.085**	0.171**	0.039	0.224**	-0.009	1.000

*p<0.05, **p<0.01

<표 26 [모형 2]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중학생)>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 변화	Log사고육비	사고육시간	Log소득	지역	부모학력	성취가치	학업시간관리	자기공부시간
학업성취도	1.000									
학업성취도 변화	0.442**	1.000								
Log사고육비	0.357**	0.071*	1.000							
사고육시간	0.312**	0.030	0.679**	1.000						
Log소득	0.275**	-0.013	0.362**	0.261**	1.000					
지역	0.069**	0.008	0.139**	0.106**	0.117**	1.000				
부모학력	0.238**	0.010	0.183**	0.140**	0.429**	0.152**	1.000			
성취가치	0.318**	0.083**	0.112**	0.093**	0.075**	0.071**	0.107**	1.000		
학업시간관리	0.341**	0.109**	0.148**	0.118**	0.109**	0.087**	0.127**	0.518**	1.000	
자기공부시간	0.281**	0.016	0.271**	0.234**	0.224**	0.078**	0.223**	0.266**	0.294**	1.000

*p<0.05, **p<0.01

<표 27 [모형 2]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 변화	Log사고육비	사고육시간	Log소득	지역	부모학력	성취가치	학업시간관리	자기공부시간
학업성취도	1.000									
학업성취도 변화	0.404**	1.000								
Log사고육비	0.119**	-0.052*	1.000							
사고육시간	0.095**	-0.050*	0.657**	1.000						
Log소득	0.152**	-0.030	0.373**	0.262**	1.000					
지역	0.077**	0.029	0.168**	0.201**	0.090**	1.000				
부모학력	0.152**	-0.018	0.247**	0.218**	0.417**	0.143**	1.000			
성취가치	0.340**	0.071**	0.087**	0.070**	0.070**	0.039	0.094**	1.000		
학업시간관리	0.407**	0.103**	0.118**	0.082**	0.143**	0.078**	0.107**	0.418**	1.000	
자기공부시간	0.302**	0.064**	0.273**	0.230**	0.243**	0.091**	0.222**	0.326**	0.375**	1.000

*p<0.05, **p<0.01

(2) VIF 진단

다중공선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VIF값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VIF값이 10보다 클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의 모든 변수들의 VIF값은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되었다.

제 3 절 분석 결과

[모형1] 지위경쟁과 사교육

1. 지위경쟁과 사교육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지위경쟁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8 지위경쟁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중학생)>

	log 사교육비					VIF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표준화 회귀계수	
교육열	0.016 **	0.008	2.059	0.040	0.048	1.006
대입관	0.011	0.009	1.226	0.221	0.029	1.007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	0.121 ***	0.017	7.087	0.000	0.166	1.006
Log연소득	0.433 ***	0.037	11.589	0.000	0.301	1.232
지역	0.071 ***	0.009	8.109	0.000	0.194	1.052
부모학력	0.003	0.004	0.699	0.484	0.018	1.238
형제자매유무	-0.044 *	0.026	-1.665	0.096	-0.039	1.010
Adj. R ² =0.193						

*p<0.1, **p<0.05, ***p<0.01

중학생 시기 분석결과, 사교육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열과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유의수준 내에서 교육열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사교육비가 0.016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 유의수준 내에서 사교육을 받는 이유가 지위경쟁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0.121단위만큼 더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소득과 지역 그리고 형제자매유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1% 유의수준 내에서 1단위 증가할 때마다 0.433단위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였다. 이는 소득과 사교육비가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소득 분위 간 사교육비가 크게 차이난다는 통계자료와도 일치한다. 지역의 경우, 1% 유의수준 하에서 규모가 클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제자매가 있는 집단이 형제자매가 없는 집단보다 0.044단위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한 명인 경우보다 아이 한 명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적어지게 됨을 뜻하며 이는 자원희석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부모의 학력은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열과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과 달리 학생의 대입관은 사교육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중학생에게는 아직 대학교입시가 가깝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교육 수요 결정연구에서 어린 시절에는 본인 스스로의 선택보다는 주위 사람의 영향을 받아 사교육을 선택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즉, 중학생 시기에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보다 부모의 교육열이 사교육 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표 29 지위경쟁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고등학생)>

	log 사교육비					VIF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표준화 회귀계수	
교육열	0.013	0.010	1.331	0.184	0.035	1.021
대입관	0.030 **	0.010	2.967	0.003	0.078	1.021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	0.101 ***	0.020	4.996	0.000	0.132	1.030
Log연소득	0.527 ***	0.041	12.968	0.000	0.370	1.193
지역	0.087 ***	0.010	8.761	0.000	0.232	1.023
부모학력	-0.001	0.005	-0.175	0.861	-0.005	1.238
형제자매유무	-0.117 ***	0.030	-3.940	0.000	-0.103	1.003
고등학교유형	0.089 ***	0.017	5.197	0.000	0.141	1.074
Adj. R ² =0.294						

*p<0.1, **p<0.05, ***p<0.01

고등학생 시기 분석 결과, 중학생시기와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중학생 시기에는 교육열과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이 사교육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것에 반해, 고등학생 시기에는 대입관과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이 사교육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 시기에는 부모의 교육열이, 그리고 고등학생 시기에는 학생의 대입관이 각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중학생의 경우 사교육 의사결정에 있어서 본인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학생들은 주변의 교육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의 전략적 학원선택 행위에 영향을 받으며, 비용적 측면에서도 수동적인 참여 결정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숙·한대동·남현숙, 2012). 또한 중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의사결정과정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분석에서 사교육 결정시 참조하

는 집단은 엄마와 주변인 엄마모임이며, 최종 의사결정자 역시 어머니로 귀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승이 외, 2015). 즉, 중학생은 부모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교육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부터는 자신의 학습에 좀 더 주체성을 갖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본인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소득, 지역, 형제자매유무 그리고 고등학교유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1% 유의수준 내에서 1단위 증가할 때마다 0.527단위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였다. 지역의 경우, 1% 유의수준 하에서 규모가 1단위 클수록 사교육비를 0.087단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제자매가 있는 집단이 형제자매가 없는 집단보다 0.117단위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1단계 더 경쟁성을 띠는 학교일수록, 사교육비는 0.089단위 증가하였다. 한편, 부모의 학력은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시기 모두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지위경쟁과 사교육비 비중의 관계

다음으로 지위경쟁이 사교육비 비중에 미치는 영향 결과 분석이다. 사교육비 비중은 전체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값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다고 하여도 소득에 따라서 그 값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중학생 시기의 분석 결과,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동일하게 교육열과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이 사교육비 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대입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교육열은 1% 유의수준 내에서 교육열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사교육비 비중이 0.485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 유의수준 내에서 사교육을 받는 이유가 지위경쟁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2.082단위만큼 더 사교육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소득과 지역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1% 유의수준 내에서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2.198단위만큼 사교육비 비중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비의 범위는 0~200으로 나타나는 반면, 소득의 범위는 0~40000으로, 그 폭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을 경우 분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사교육비 비중은 작게 나타난다. 소득이 오를수록 값이 낮아지는 엔겔지수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지역의 경우, 1% 유의수준 하에서 지역 규모가 클수록 사교육비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의 경우와 달리 이번 결과에서는 형제자매유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지위경쟁이 사교육비 비중에 미치는 영향(중학생)>

	사교육비 비중					VIF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표준화 회귀계수	
교육열	0.485 ***	0.152	3.200	0.001	0.073	1.008
대입관	0.064	0.175	0.365	0.715	0.008	1.006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	2.082 ***	0.333	6.252	0.000	0.143	1.005
Log연소득	-12.198 ***	0.708	-17.234	0.000	-0.434	1.225
지역	1.299 ***	0.172	7.544	0.000	0.176	1.047
부모학력	0.080	0.082	0.978	0.328	0.025	1.233
형제자매유무	-0.518	0.514	-1.007	0.314	-0.023	1.012
Adj. R ² =0.208						

*p<0.1, **p<0.05, ***p<0.01

고등학생 시기 분석 결과, 대입관과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이 사교육비 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5% 유의수준 내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1단위 높을수록, 0.661만큼 사교육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 유의수준 내에서 사교육 받는 이유가 지위경쟁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1.651단위 만큼 사교육비 비중이 높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소득, 지역, 형제자매유무 그리고 고등학교유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1% 유의수준 내에서 1단위 증가할 때마다 16.468단위만큼 사교육비 비중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비의 범위는 0~250으로 나타나는 반면, 소득의 범위는 100~20000으로, 그 폭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지역의 경우, 1% 유의수준 하에서 지역 규모가 클수록 사교육비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단위 증가할 때마다 2.593단위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대

규모 도시의 사람들이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형제자매유무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1%유의수준 내에서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에게 쓰는 사교육비의 비중이 외동인 아이의 경우보다 2.133단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유형 또한 1%유의수준 내에서 2.200단위만큼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표 31 지위경쟁이 사교육비 비중에 미치는 영향(고등학생)>

	사교육비 비중					VIF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표준화 회귀계수	
교육열	0.194	0.267	0.726	0.468	0.020	1.022
대입관	0.661 **	0.275	2.407	0.016	0.065	1.022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	1.651 ***	0.550	3.001	0.003	0.082	1.030
Log연소득	-16.468 ***	1.104	-14.919	0.000	-0.436	1.188
지역	2.593 ***	0.272	9.347	0.000	0.253	1.022
부모학력	0.077	0.129	0.602	0.547	0.018	1.224
형제자매유무	-2.133 ***	0.818	-2.607	0.009	-0.070	1.003
고등학교유형	2.200 ***	0.468	4.699	0.000	0.131	1.075
Adj. R ² =0.252						

*p<0.1, **p<0.05, ***p<0.01

[모형2] 사교육과 학업성취도

3. 사교육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모형2]에서는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중학생 시기의 경우,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 모두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유의수준 내에서, 사교육비지출이 1단위 높을수록 0.429단위만큼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 유의수준 내에서, 사교육시간이 1단위 길수록, 0.034단위만큼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는 지역을 제외하고 소득, 부모학력, 성취가치, 학업시간관리, 그리고 자기공부시간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은 1% 유의수준 내에서 1단위 높을수록 1.243단위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 또한 1%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학력의 평균이 1단위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0.155단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배경변인 중 지역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개인변인인 성취가치, 학업시간관리, 그리고 자기공부시간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취가치와 학업시간관리는 1% 유의수준 내에서, 1단계 상승할수록 각각 0.742, 0.836만큼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자기공부시간 또한 1% 유의수준으로, 자기공부시간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배경변인뿐 아니라 개인변인 또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학습동기와 학습시간과 같은 개인학습활동 관련 요인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이수정·임현정, 2009)는 선행연구

구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표 32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중학생)>

	학업성취도					VIF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표준화 회귀계수	
Log사교육비	0.429 ***	0.073	5.854	0.000	0.163	1.977
사교육시간	0.034 ***	0.010	3.505	0.000	0.094	1.854
Log연소득	1.243 ***	0.288	4.316	0.000	0.099	1.336
지역	-0.095	0.072	-1.322	0.186	-0.027	1.035
부모학력	0.155 ***	0.034	4.529	0.000	0.101	1.272
성취가치	0.742 ***	0.115	6.473	0.000	0.151	1.382
학업시간관리	0.836 ***	0.103	8.130	0.000	0.190	1.398
자기공부시간	0.018 ***	0.006	3.223	0.001	0.070	1.217

Adj. R²=0.259

*p<0.1, **p<0.05, ***p<0.01

고등학생 시기의 경우, 중학생 시기와 매우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중학생 시기와 달리,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 모두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의 경우 방향성이 (-)를 나타내었다. 동일한 대상을 표본으로 하였음에도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왔다는 점은 큰 시사점을 갖는다.

통제변수의 경우에는 중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 부모학력, 성취가치, 학업시간관리, 자기공부시간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33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고등학생)>

	학업성취도					VIF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표준화 회귀계수	
Log사교육비	-0.009	0.054	-0.175	0.861	-0.005	1.881
사교육시간	0.003	0.008	0.389	0.697	0.011	1.777
Log연소득	0.546 **	0.254	2.152	0.032	0.054	1.350
지역	0.080	0.063	1.265	0.206	0.028	1.058
부모학력	0.082 ***	0.030	2.765	0.006	0.067	1.279
성취가치	0.709 ***	0.104	6.822	0.000	0.166	1.284
학업시간관리	1.021 ***	0.091	11.190	0.000	0.277	1.325
자기공부시간	0.019 ***	0.005	4.231	0.000	0.104	1.314
Adj. R ² =0.216						

*p<0.1, **p<0.05, ***p<0.01

4. 사교육과 학업성취도 변화의 관계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해서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효과가 있다고 바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움이 있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사람이 사교육을 더 받는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업성취도와 함께 학업성취도 변화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학업성취도 변화는 금년도 성적에서 작년도 성적을 빼 값으로, 전년도와 대비한 성적 변화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로 학업성취도 변화를 사용하면,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중학생 분석 결과, 학업성취도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 변화에서도 사교육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유의수준 내에서 사교육비를 1단위 더 지출할수록, 학업성취도 변화가 0.201단위만큼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시간은 학업성취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학업성취도 분석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통제변수들이 유의한 결과가 나왔던 반면, 학업성취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학업시간관리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유의수준 내에서 학업시간관리를 더 잘할수록, 0.276단위 만큼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사교육이 학업성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중학생)>

	학업성취도 변화					VIF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표준화 회귀계수	
Log사교육비	0.201 **	0.067	3.010	0.003	0.097	1.977
사교육시간	-0.013	0.009	-1.431	0.153	-0.045	1.853
Log연소득	-0.272	0.264	-1.032	0.302	-0.027	1.333
지역	-0.002	0.065	-0.033	0.974	-0.001	1.037
부모학력	0.005	0.031	0.168	0.867	0.004	1.269
성취가치	0.117	0.104	1.123	0.261	0.030	1.380
학업시간관리	0.276 ***	0.094	2.939	0.003	0.080	1.396
자기공부시간	-0.006	0.005	-1.232	0.218	-0.031	1.214
Adj. R ² =0.011						

*p<0.1, **p<0.05, ***p<0.01

고등학생 분석 결과, 사교육비가 학업성취도 변화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의 방향을 나타냈다. 10% 유의수준 내에서 사교육비를 1단위 더 지출할수록, 0.095단위만큼 학업성취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교육을 받을수록 성적이 하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고등학생 시기의 경우 중학생 시기와 달리 사교육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사교육시간의 경우 학업성취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부(-)의 방향을 나타내었다.

통제변수의 경우, 학업시간관리와 자기공부시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1% 유의수준 내에서 학업시간관리를 더 잘 할수록 0.270단위 만큼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것으로, 5% 유의수준내에서 자기공부시간이 더 길수록 0.009단위 만큼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 모두 학업성취도 변화에 학생의 배경변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학업시간관리와 자기공부시간 같은 개인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 또한 현재의 사교육 현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35 사교육이 학업성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고등학생)>

	학업성취도 변화					VIF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표준화 회귀계수	
Log사교육비	-0.095 *	0.054	-1.765	0.078	-0.060	1.885
사교육시간	-0.005	0.008	-0.583	0.560	-0.019	1.773
Log연소득	-0.172	0.252	-0.683	0.495	-0.019	1.346
지역	0.103	0.063	1.621	0.105	0.041	1.052
부모학력	-0.025	0.029	-0.867	0.386	-0.024	1.266
성취가치	0.038	0.104	0.364	0.716	0.010	1.269
학업시간관리	0.270 ***	0.091	2.960	0.003	0.083	1.314
자기공부시간	0.009 **	0.005	1.977	0.048	0.056	1.304
Adj. R ² =0.014						

*p<0.1, **p<0.05, ***p<0.01

5. 결과의 해석

본 연구에서는 지위경쟁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모형1]에서는 교육열, 대입관, 사교육 받는 이유로 이루어진 지위경쟁을 독립변수로 두고 사교육비와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모형2]에서는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을 독립변수로, 학업성취도와 전년도 대비 올해 학업성취도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마찬가지로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지위경쟁과 사교육의 분석 결과,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교육열과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이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의 대입관과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이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열, 대입관, 사교육 받는 이유 중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의 대입관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교육열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것은 시기에 따라 사교육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는 중학생의 경우 사교육 의사결정에 있어서 본인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중학생 시기의 사교육 결정자는 엄마이며, 학생들은 이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식으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대학 진학을 중요시여기는 학생의 대입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 부모의 교육열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이러한 성향을 뒷받침해준다. 반면에 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부터는 자신의 학습에 좀 더 주체성을 갖고 자신의 의사가 더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릭슨의 사회심리적 성격 발달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과 역할혼미의 시기이다. 청소년은 점점 자신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해나가려하는 자기주체성을 갖는다. 부모의 교육열이 중학생 시기와 달리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이운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학부모 유형인 ‘학생에 대한 부모의 기대치를 표현하면서 교육을 학생이 아닌 부모가 관리하는 유형’의 경우, 일정 수준 효과는 나오지만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동아뉴스, 2016).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관여는 좋은 효과를 내기 힘들고, 이에 따라 부모의 관여 정도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대입관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목표 설정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대학교 입시가 시기상 직접적이지

않은 중학생과 달리, 고등학생의 경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좋은 대학에 가고자하는 목표가 뚜렷하게 생기며, 지향성과 지속적 노력을 갖게 하여 실행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의 유의변수가 달라진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은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계수 또한 다른 변수보다 크게 나타났다. 똑같이 사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지위경쟁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비중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는 결과를 통해, 지위경쟁이 사교육 과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은 모든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값 또한 컸다. 이는 현재의 과열된 사교육 시장 속에서 큰 문제로 여겨지는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현상을 보여준다. 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는 증가했으나, 사교육비지출 범위는 소득 범위보다 좁기 때문에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소득이 많을수록 훨씬 작게 나타난다. 즉, 사교육비를 더 쓰더라도 사교육지출로 느끼는 부담은 더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의 학습 기회 격차는 더 벌어지고, 이것이 학업성취도로 이어져 결국 계층 고착화를 낳을 우려가 있다. 소득 격차로 인한 교육 기회 불평등의 문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지역 또한 모든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정(+)의 방향을 나타내었다. 즉,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형제자매유무는 중학생 시기의 사교육비 비중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방향성은 (-)를 나타내었다. 이는 자원희석가설과 같은 방향의 결과로, 한정된 자원(소득)안에서 자녀가 여럿인 경우에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보다 자녀 1인당 지출

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의 유형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좀 더 입시경쟁에 적극성을 띠는 학교 유형일수록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비중에 더 큰 값을 나타냈다. 한편, 부모의 학력은 선행 연구와는 달리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과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 중학생 시기에 사교육비는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취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시간의 경우 학업성취도에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학업성취도 향상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고등학생 시기에는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 모두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변화에서는 사교육비가 오히려 부(-)의 방향을 나타내었다.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사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도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어린 중학생 시기에는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자체보다는 학생 개인의 노력과 자기주도성 등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사교육과 학업성취도 간의 선행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분석방법이나 변수들의 차이도 있으나 분석 대상의 차이 때문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정 시기의 중학생, 고등학생을 분석한 것이 아닌, 동일한 대상의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를 분석한 것이기에 그 결과의 의미가 더 크다. 동일한 대상을 토대로 한 연구에서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에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시기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을 알려준다.

사교육비·사교육시간과 학업성취도에 있어, 소득과 부모학력이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배경변인 중 지역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과 더불어 개인변인인 성취가치, 학업시간관리, 자기공부시간이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성취가치와 학업시간관리는 다른 변수들보다 계수 값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취도에 있어 단순히 사교육을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학생 개인의 학습태도·습관 등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사교육의 효과를 맹신하며 무조건적으로 참여하는 현재의 사교육 시장 분위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중학생 시기의 경우 학업시간관리만이, 고등학생 시기의 경우 학업시간관리와 자기공부시간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체가 아닌 성적의 변화에 있어서는 다른 통제변수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제 4 절 가설의 검정 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라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검정하였다. 지위경쟁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비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취도 변화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두 경우 모두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중학생 시기의 경우, 부모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따라서 가설 1-1-1과 1-1-2는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중요시하는 대입관은 방향성은 정(+)의 방향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설 1-2-1과 1-2-2는 기각된다. 사교육 받는 이유가 지위경쟁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설 1-3-1과 1-3-2는 채택된다.

사교육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클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성적도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1과 2-1-2는 채택된다. 사교육시간의 경우, 사교육시간이 길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1은 채택된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변화의 경우, 사교육시간과의 관계가 부(-)의 방향을 띠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2-2-2는 기각된다.

고등학생 시기의 경우, 부모의 교육열과 사교육비· 사교육비 비중은 정(+)의 방향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의 경우는 가설 1-1-1과 1-1-2는 기각된다. 좋은 대

학에 가는 것을 중요시할수록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이에 따라 가설 1-2-1과 1-2-2는 채택된다. 사교육 받는 이유가 지위경쟁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해 가설 1-3-1과 1-3-2는 채택된다.

사교육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사교육비 지출과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부(-)의 방향을 나타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2-1-1은 기각된다. 학업성취도 변화에 있어서는, 사교육비와의 관계가 부(-)의 방향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가설 2-1-2와 반대방향의 결과로 이는 기각된다. 사교육시간의 경우,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는 정(+)의 방향을, 학업성취도 변화와는 부(-)의 방향을 나타냈으나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2-1과 2-2-2는 기각된다.

<표 36 가설 검증 결과(중학생)>

구분	가설	방향성	유의성
가설1-1-1	부모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클 것이다	+	○
가설1-1-2	부모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다	+	○
가설1-2-1	학생의 대입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클 것이다	+	X
가설1-2-2	학생의 대입관이 높을수록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다	+	X
가설1-3-1	사교육을 받는 이유가 지위경쟁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클 것이다	+	○
가설1-3-2	사교육을 받는 이유가 지위경쟁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다	+	○
가설2-1-1	사교육비 지출이 클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	○
가설2-1-2	사교육비 지출이 클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을 것이다	+	○
가설2-2-1	사교육시간이 길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	○
가설2-2-2	사교육시간이 길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을 것이다	-	X

<표 37 가설 검정 결과(고등학생)>

구분	가설	방향성	유의성
가설1-1-1	부모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클 것이다	+	X
가설1-1-2	부모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다	+	X
가설1-2-1	학생의 대입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클 것이다	+	O
가설1-2-2	학생의 대입관이 높을수록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다	+	O
가설1-3-1	사교육을 받는 이유가 지위경쟁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클 것이다	+	O
가설1-3-2	사교육을 받는 이유가 지위경쟁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다	+	O
가설2-1-1	사교육비 지출이 클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	X
가설2-1-2	사교육비 지출이 클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을 것이다	-	O
가설2-2-1	사교육시간이 길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	X
가설2-2-2	사교육시간이 길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을 것이다	-	X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한계

본 연구는 지위경쟁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과열된 사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되어 왔고 일방적 규제나 공교육의 개선과 같은 방향의 대책이 세워졌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사교육의 근본원인이라 여겨지는 지위경쟁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지위경쟁이론에 따르면 남보다 한 단계라도 높은 성적·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 지위의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더 높은 성적·학력을 위한 과열된 경쟁을 벌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위경쟁이 실제로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에서 제공하는 교육열, 대입관, 사교육 받는 이유를 대리변수로 이용하였다.

지위경쟁으로 인해 사교육을 하게 된다는 지위경쟁이론에 따라, 지위경쟁과 사교육이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 가정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3차 데이터와 5차 데이터를 통해 각각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를 분석하였으며, 사교육비와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생 시기의 경우, 부모의 교육열과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이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비중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대입관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시기의 경우에는 학생의 대입관과 사교육 받는 이유의 지위경쟁성이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기에 따라 사교육 결정요인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통제변수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외동일수록, 특목고·자사고일수록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는, 사교육이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 또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3차 데이터와 5차 데이터를 통해 각각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를 분석하였으며, 국·영·수 성적과 전년도와 비교한 국·영·수 성적 변화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생 시기의 경우, 사교육비지출이 더 클수록, 그리고 사교육받는 시간이 길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변화에서는 사교육비지출이 더 클수록, 성적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교육시간은 학업성취도 변화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시기의 경우에는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 모두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취도 변화에 있어서는 사교육비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는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 간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지위경쟁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지위경쟁 중 부모의 교육열을 측정하는 데 있어 학생의 답변을 사용하였기에 실제 부모의 교육열과는 다를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학생이 받은 사교육이 어떠한 과목인지, 어떠한 형태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과목별 또는 형태별 사교육의 영향을 확인할 수 없

었다. 그리고 학생의 성적을 측정하는 데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와 같은 성적이 아닌 학생의 주관성이 포함된 등급 답변이 사용되었기에 정확한 성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평가원 전국 모의고사와 같은 공신력을 가진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할 경우, 보다 정확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후속연구의 가능성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사교육 과열 양상과 과도한 사교육비는 오랜 기간 문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규제 및 공교육 개선 등의 방향으로 사교육 대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위경쟁이론에 따르면 교육팽창의 원인은 지위경쟁이며, 연구결과 지위경쟁이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교육의 학업성취도 효과를 맹목적으로 믿고 참여하는 현 상황에 반해, 사교육의 학업성취도 효과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위경쟁이 사교육의 원인임을 고려한 사교육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교육 대책들은 지위경쟁을 사교육의 원인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많았고, 이로 인해 정책의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공교육 질 향상과 같은 방향의 정책 또한 사교육 문제의 근본해결책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사교육 대책 중 사교육 제공형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교육 과열 현상을 억압적으로 막는다고 근본적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불가피한 것

이기에, 자원배분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또한 교육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의 정책도 필요하다.

둘째, 시기에 따라 사교육 결정 요인이 다르게 나타남을 고려해야 한다. 분석 결과,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비중이 중학생 시기에는 부모의 영향을, 고등학생 시기에는 학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에 따른 사교육 수요 결정자를 고려한 사교육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교육 참여율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떨어진다는 점에서 현재의 사교육은 부모의 영향에 의한 과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녀의 사교육참여를 결정하는 학부모를 초점으로 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교육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본 전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사교육을 선택하는 이유에는 사교육을 통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엇갈린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중학생 시기에는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고등학생 시기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학업성취도 변화에 있어서 사교육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중학생 시기와는 달리, 고등학생 시기에는 오히려 부(-)의 방향을 나타내었다. 현재의 사교육 과열 현상은 사교육 효과에 맹목적인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만큼, 사람들이 사교육 효과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 중 성취가치와 학습시간관리와 같이 학생 개인 변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사교육만이 능사가 아니라 학생 개인의 학습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사교육효과에 대해 갖고 있는 무비판적인 인식을 재고하고, 학생 스스로의 요인이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위와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사람들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위경쟁으로 인해 사교육이 팽창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무비판적 신뢰의식을 재고한다면 현재의 과열된 사교육으로 발생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인원·전성일 (2003) 학벌주의가 학부모들의 인식수준과 사교육의도에 미치는 영향

강일국 (2012) 사교육 정책의 역사와 의미 「교육비평」

강태중 (2008)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영향

강태중 (2009) 사교육비 지출의 성별 차이 분석

구인회·박현선·정익중 (2006)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권 승 (2008) 소득, 포부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매개변수 검증을 중심으로

김경근·황여정 (2009) 중학생의 사교육 수요 결정요인 분석

김광혁 (2007) 경제적 박탈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김광혁 (2008) 가족의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 이웃환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김미란 (200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영향요인 분석

김성식·송혜정 (2009) 학교 불만족과 특목고 진학 경쟁이 사교육 시간과 비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김신일 (2009)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김위정·염유식 (2009) 계급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관한 연구-합리적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김인숙·여정성 (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김정민·김정숙·김일혁 (2014)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을 통한 학교교육 개선 방향 탐색

김지하·백일우 (2006) 게임이론에 기초한 입시과외 수요 분석

김태일 (1997)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업 성취효과 분석

김현진 (2004)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김혜숙·한대동·남현숙 (2012)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김희삼 (2009)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의 분석

남기곤 (2004) 고교평준화 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친 영향-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남미숙 (2010) 초등학교 영어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결정요인

노현경 (2006) 학부모 및 학생 관련 요인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도승이·진하늘·최린건·김록현 (2015) 중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분석

박철성 (2010)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사교육 수요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박현정 (2008) 학교교육의 질과 사교육 참여의 관계 분석

박현정·이준호 (2009) 중학생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계획이 사교
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백순근·김혜지·윤지윤 (2010) EBS강의 수강 시간이 사교육비에 미
치는 영향

서춘래 (2003)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

송경오 (2013)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에 대한
메타분석적 접근

안선희 (2015)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

양정호 (200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여영기·엄문영 (2015) 사교육 진화의 양상과 원인을 통해 본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

원지영 (2009)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기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명현·김진영·송창용 (2005) 사교육의 학습성취도 향상 효과에
관한 연구

이수정 (2007) 명문대 중심 대입관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계 분석

이수정·임현정 (2009)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사교육비 효과
분석

이재열 (2015)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 아시아리뷰

이종재·장효민 (2008) 사교육 대책의 유형에 관한 분석적 연구, 아
시아 교육 연구

이주호·홍성창(2001) 학교 대 과외: 한국 교육의 선택과 형평

임도빈·고길곤·구민교·권혁주·변창흠·엄석진·이수영·이종수·이혁우·
조선일·하연섭 (2015), 실패한 정책들 - 정책학습의 관점에서 박영사

임천순·박소영·이광호 (2004)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임천순·우명숙·채재은 (2008) 사교육 수요 분석: 학습보충론과
미래투자론

채창균 (2006)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
증분석

최형재 (2008) 사교육의 대학 진학에 대한 효과

한순미 (2004) 학습동기 변인들과 인지전략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한신일·박진은·김현철 (2011) 사교육 과열지역 학부모들의 「3·20
사교육 의존도 완화 방안」에 대한 반응 분석

동아뉴스 (2016) “기대만큼 못해서 죄송” 엄마 잔소리에 움츠린 아
이들

베리타스알파 (2013) 서울대 신입생 부모 대졸 80%...‘학력 대물림’

연합뉴스 (2016) 고소득층 교육비, 저소득층의 7.8배... 계층 사다리
끊어지나

연합뉴스 (2016)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 월평균 24만 4천원... 3년
연속 ↑

통계청, 2015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Bowls, S and H. Gintis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 Educational Reform and the Contradictions of Economic Life*,
New York : Basic Books

Collins, Randall (1979) *The Credential Society*
New York: Academic Press.

Clark, Burton R (1973) “Development of the sociology of higher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Harold, Maslow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Hirsch, Fred (1976) *Social Limits to Growt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Illich, I (2004) *Deschooling society*

Abstract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 on Study Achiev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status competition-

Jee Hyun Shi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kyrocketing participation ratio of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followed by an increasing expenditure is becoming a heavy burden on household and is now a major social issue. The expanding cost of private education is not only becoming a financial burden on household, but it also decreases the economic mobility of social class. A decrease in the mobility of social class will devitalize our society. As a response towards this, many policies were made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y did not create progress in turning back the situa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ason on why there is an increasing participation of private education based on the status competition theory. Not only that, this research also tries to find out on whether it is true that by participating in private education, it is able to improve the overall students' study achievements, just as the general public have blindly believed in so. By clarifying correlation between private education experience and study achievements, belief in private education can be

reconsidered.

This research is aime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us competition and private education based on status competition theory. status competition is defined as a factor of parents' education fever, students' concept that put emphasis on famous college, and the reason of participating in private education. The dependent variable ar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nd the ratio between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nd income. To clarify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us competition and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the KCYPS(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data in 2012 and 2014. The results were analyzed during middle school and during high school.

This research is also aime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education and study achievement. The independent variable ar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nd private education hours. The dependent variables are study achievement and improvement of study achievement. A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the KCYPS data in 2012 and 2014. The results were analyzed during middle school and during high school.

For middle school perio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parents' education fever was, the mor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was. It also showed that the group of competitive reason spent mor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It also showed that the higher the parents' education fever was, the higher the ratio between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nd

income was. The group of competitive reason showed higher ratio between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nd income than another group. All result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For high school perio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students' concept that put emphasis on famous college was, the mor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was. The group of competitive reason spent mor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It also showed that the higher the students' concept that put emphasis on famous college was, the higher the ratio between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nd income .The group of competitive reason showed higher ratio between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nd income than another group. All result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In other words, the parents' education fever is significant during middle school and the students' concept that put emphasis on famous college is significant during high school. The competitive reason of participating in private education is significant in both period.

For middle school perio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nd the private education hours both affect the students' study achievement. For high school period, however, they were not significant. In research of the improvement of study achievement, th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was significant in both period. For middle school perio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nd the improvement of study achievement was positive. For high school period,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nd the

improvement of study achievement was negative. These results come because students become autonomous when they get older and the self directed learning becomes more important. The private education hours was not significant in both period.

Because of the limit of the resource and the status, the competition is inevitable. People consider competitors' behavior, and they participate in unlimited competition. In this situation, the extermination of the problem of private education is difficult.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create policies that consider status competition. Also the policies should be helpful to decreas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students' education opportunity. People also need to understand that apart from private education, research have proved that more important factor is still the students' will and effort that determine the results of their study achievements.

keywords : **status competition, private education, study achievement, education fever, KCYPS**

Student Number : **2013-21900**